

한-러 극동 산업협력 세미나 참석 및 관련 기관 방문

- 김학기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개요

□ 출장지역: 러시아 극동지역(하바롭스크, 블라디보스톡)

□ 출장목적:

- 지식경제부 주관 ‘러시아 극동지역 경제, 산업협력 세미나’ 참석
- 한·러 극동 산업 협력 관련 기관 방문
- 자체 과제 필요 자료 수집

□ 출장자: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연구위원 김학기

□ 출장기간 : 2013. 2. 18(월) ~ 2013. 2. 21(목)

□ 출장 일정 및 방문 기관

기 간	주요 일정
2013. 2.18(월)	인천출발(10:30) - 하마롭스크 도착(15:30) 업무간담회, 행사 오리엔테이션
2013. 2.19(화)	① 하마롭스크 주정부 산업협력세미나(10:00~12:00) ② 극동개발부 관계자 면담(12:30~13:30) ③ 극동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(14:30~15:30) ④ 발틱카 공장 방문 (16:30~18:00)
2013. 2.20(수)	하마롭스크 출발(08:35) - 블라디보스톡 도착(10:00) ⑤ 현대 중공업 연해주 GIS 공장 방문(10:30~11:30) ⑥ 연해주 주정부 산업협력세미나(2:30~4:00) ⑦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방문 면담
2013. 2.21(목)	⑧ 루스키섬 특별경제구역 방문 ⑨ KOTRA 블라디보스톡 관장 면담 -블라디보스톡 출발(15:10)~인천 도착(15:50)

II. 방문 기관 및 주요 면담 내용

1. 하바롭스크 주정부 산업협력세미나

□ 개요

- 장소 : 하바롭스크 주정부 청사
- 방문 일시 : 2013. 2. 19, 10:00~12:00
- 참석자

PARTICIPANT'S LIST
meeting with the delegation of Korean-Russian Business Council

Khabarovsk
401-19, Muravyev-Amursky Street

February 19, 2013
10:00

From Russian Party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SHABOVTA
Alexander | - Deputy Minister on Investment Policy Issues,
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
Relations of the Krai |
| 2. RASSOKHATSKAYA
Nelya | - Acting 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and
Foodstuff of the Krai |
| 3. GRIGORYEVA
Valentina | - Deputy Minister – Director, Department for
Coordi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
Integrated Projects, Ministry of Economic De-
velopment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Krai |
| 4. MUSYANOVICH
Bogdan | - Deputy Minister – Director, Department for
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, Minis-
try of Industry and Transport of the Krai |
| 5. SELYKOV
Vitaly | - Deputy Minister – Director, Department of
Tourism, Ministry of Culture of the Krai |
| 6. ISCHUK
Nikolay | - Director, Department of Subsurface Manage-
ment,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
Krai |
| 7. VORONIN
Sergey | - Deputy Director – Head, Division of Passenger
and Cargo Transportation, Department of
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, Minis-
try of Industry and Transport of the Krai |
| 8. LARIONOV
Sergey | - Head, Division for Human Resources, Depart-
ment for Preventive Medical Assistance, Min-
istry of Health Care of the Krai |
| 9. TREGUBOV
Sergey | - Head, Division for Forestry Complex Devel-
opment, Forestry Committee, Ministry of Natu-
ral Resources of the Krai |
| 10. ALEKSANDROV
Nicolay | - Head,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-
tion Division, Foreign Relations and Invest-
ments Department, Ministry of Economic De-
velopment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Krai |
| 11. CHIZHOVA
Galina | - Rector, Khabarovsk Krai “Institute of Contin-
uous Education of Health Care Specialists” |
| 12. BEREZA
Evgeny | - Consultant, Division for Fuel and Energy
Complex Development Assessment, Commit-
tee of Khabarovsk Krai Government on Fuel
and Energy Complex |
| 13. LIM
Valentina | - Interpreter |

한국측 - 박정호(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),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, 이상준 국민대교수, 서정호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영사, 김현진 지식경제부 사무관, E. Avramova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컨설턴트, 송재은 대우인터내셔널 블라디보스톡사무소장, Park Camilla(통역)

□ 주요 면담 내용

① 하바롭스크지방 투자 잠재력 설명

○ 하바롭스크주 개황, 경제동향, 주요 산업, 투자 사업 설명

- 인구 130만명, 지역총생산 145억 달러(2012년), 수출 190억 달러, 수입 120억 달러
- GRP 구조 (제조업 9.4%, 수송 통신 17.5%, 교역 12.6%, 건설 11.5%, 농업 6.5%, 광업 7.2% 등)
- 공업생산구조(제조업 57%, 에너지 물, 가스 공급 22%, 광업 21%)
- 러시아내에서의 투자 잠재력 순위는 2009는 33위에서 2012년 34위, 투자 리스크는 68위에서 35위
- 주요 투자자는 Exxon Neftegas, Rosneft oil, Gazprom,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, 한국의 Kogas 등
-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(37%), 한국(18%), 일본(6%), 태국(5%), 독일(4%) 등
- 주요 투자국은 말레이시아(37%), 한국(26%), 미국(2.2%), 중국(2.1%) 등

○ 투자 정책

- 투명한 투자 정책 등 투자 환경 개선위해 최대한 노력
-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지정
- 주정부 차원의 세금 특혜, 인프라 지원 등

○ 공업개발지역 설명

- 콤포몰스크, 하바롭스크, 바니노-소비에트가반 수송 공업 허브

○ 항공 엔지니어링 및 조선 분야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설명

- IT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틈새시장에 대해서만 일부 가능성이 있음.

○ 대형 콤플렉스 개발 프로젝트 설명

- 가스 및 화학 콤플렉스
- 항만 특별경제지역 “Sovetskaya Gava”
- 항공 콤플렉스
- 발쇼이 우수리스크섬 개발 프로젝트

○ 주요 투자 프로젝트 프로포잘

- 농업, 관광, 산업, 부동산 분야

○ 투자 유치를 위한 주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 활동 소개

- 주정부 산하 투자 위원회 설치
- 투자 전권대표
- 주지사 산하 투자 평의회 자문위원 개설
- 주 경제개발부의 투자 활동 지원

② 하바롭스크주 그린하우스센타 건립(온실재배) 프로포잘

○ 농경지가 많지 않지만 주정부는 농업에도 많은 관심 기울이고 있음.

○ 열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작물 생산에 노력

- 농경지의 42% 사료, 감자 23%, 콩 19%, 기타 작물 11%, 채소 5% 등

- 현지 채소재배는 7~10월까지 가능

○ 특히 채소 재배 투자 유치 희망

- 채소 15만 8,000톤 필요하지만 현재 공급은 6만 8,000톤에 불과, 매년 9만 8,000톤 가량 수입, 부족량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.

- 중국보다 더 안전한 한국산 채소 수입 원함.

- 주 정부는 겨울과 봄철에 신선한 채소 보급이 주요한 과제

- 온실재배 도입에 많은 관심. 장기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온실재배 프로그램이 포함됨.

- 교통 인프라가 구비된 온실 재배용 부지 제공하고, 연료용 가스도 1천 입방미터당 180달러에 공급해 줄것임. 온실에서 500미터까지 가스관 공급은 주정부에서 지원, 나머지 500미터는 투자자 설비 몫

- 오이, 토마토, 딸기 등 청과물 재배 희망

- 하바롭스크시에는 온실이 없기 때문에 온실재배 수요는 크게 증가

할 것임. 콤포스물스크시내에는 온실 건설되고 있음. 그곳 온실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임.

③ Pellet 생산 프로포잘

- 하바롭스크주는 러시아내 벌채량 5위, 극동지역내 1위, 극동지역 목재 수출의 60% 차지
- 주 영토의 67%(5,250만 h)가 산림지대. 침엽수(낙엽송, 전나무)가 75% (목재자원의 86%), 참나무, 물푸레, 느티나무, 단풍 등
-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목재 부문 고부가가치화 투자 프로젝트 수행중
 - 목재섬유 합판, 베니어, 용재 셀루로스, 종이 등 가공
 - 제재소 설립(용재 백만 m³, 베니어 19만 m³, OSB합판 15만 m³, 슈폰 48만m³, MDF 합판 74만 m³, 칩프 75만톤, 셀루로스 70만톤)
- 주요 수출 품목은 원목과 제재목으로 한국이 1위 대상국
 - 원목수출 2011년 2배, 2012년 75% 증가
 - 수출 증가는 동 부문에 대한 투자 필요함을 의미
-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중
 - 연간 8만 4,000톤의 목재 펠렛 생산 (30억 루블 소요)
 - 목재원료 가공 칩생산, 부산물 가공 프로젝트
- 하바롭스크 주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 있음.
 - 목재화학산업, 합판제조, 제재목 생산, 주택용 목재, 목재 펠렛 부문 등에서 협력 희망

④ 광업 및 천연자원 가공 프로젝트

○ 40여가지 광물 자료 탐사됨.

- 플라티늄 50%, 석탄, 금 20%가 하바롭스크주에 매장
- 대륙붕 원료 매장 18억톤, 원유매장 75% 오호츠크 대륙붕
- 금, 은, 동, 석탄 등 유용광물 채굴되고, 금 채굴은 러시아 전체에서 10위 차지, 주석은 1위

○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

- 연간 200만톤 시멘트 생산 공장, 철도 인근지역 건설
- 석탄 매장지 개발, 콤소몰스크나 아무레 지역
- 철, 망간 매장지 탐사 투자 프로젝트 유치 희망
- 상세 자료는 경제 개발부에서 얻을 수 있음.

⑤ “Amur-the Father” 쿠르주 투자 프로젝트

○ 아무르강 크루즈 관광

- 아무르강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 개발
- 크루즈 기업 설립을 예정
-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강을 거쳐 산타섬의 바다까지 항해
- 한국어로 된 쿠르즈 사업 소개 비디오 작성 및 설명
- 2013년 여름에 사업 시작 예정
- 중국, 동남아 관광객 유치 계획
-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아무르강 팬클럽 등 아무르강 관광 가능성 있음.

⑥ 한·러 보건분야 협력 발전 분야 소개

○ 보건 대학 소개

○ 한국, 일본, 중국의 교육기관과 협력, 한국이 주요 협력 파트너임.

○ 한국에서의 의사 연수 희망

○ 외과, 디지털 병원, 의료 관광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

⑦ 대우수리섬 개발 프로젝트 관련 질문

○ 국제적 관광 센터로 개발 계획

- 중국·러시아간 환경보호 프로젝트도 진행
- 중국측은 건설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러시아측은 환경보호에 관심
- 시와 주정부는 주민 휴식처, 인근 관광객 휴식처로 개발 예정
- 현재 인프라 건설 사업 진행, 2013년 말까지 다리 완공계획

○ 한국 기업들도 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.

- 주 정부는 섬 개발 관련 특혜도 제공
- 연방 차원이 극동개발계획상의 법안도 강구중

<기타>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

○ 에너지, 교통,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많이 진행됨.

○ 한국 건설업체들이 참여 희망한다면 전혀 문제없을 것임.

- 교통 인프라, 선박제조, 항구 터미널 건설 및 기타 앞에서 설명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. 인천국제공항-하바롭스크 공항 개발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.

2. 극동개발부 관계자 면담

□ 개요

- 장소 : 하바롭스크 시내 식당
- 일시 : 2013. 2. 19, 12:30~13:30
- 러시아 극동개발부 대외협력국 A. Masaltsev 면담

□ 주요 면담 내용

- 극동개발부 인력 약 260명
- 극동개발부의 극동 장기 개발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프로젝트 나온 것 없음.
 - 3월에 연방정부에서 확정할 예정
- 극동개발부와 주정부 사업간 차이 발생시 일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 컨셉이 나오지 않았다고 응답
- 아무르 콩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극동개발부에서도 관심 많음
- 중국 업체들도 비닐하우스 농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음.
 -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재배, 그러나 단맛은 많이 떨어짐.
- 한·러 지자체간 협력 사례 많음.
 - 경남과 하바롭스크지방간 농업 협력, 제주도-사할린간 자매결연
- 러시아-북한간 경제협력은 주로 철도 프로젝트 관련 사항임.

3. 하바롭스크주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

□ 개요

- 장소 : 하바롭스크주 주정부 청사
- 방문 일시 : 2013. 2. 19, 14:30~15:30
- 참석자 : 러시아측

PARTICIPANT'S LIST meeting with the delegation of Korean-Russian Business Council

*Khabarovsk
401-19, Muravyev-Amursky Street*

*February 19, 2013
14:30*

From Russian Party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VOSTRIKOV
Igor | - President, Far Eastern Chamber of Commerce |
| 2. SHULEPOV
Evgeny | - Chairman, Far Easter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|
| 3. ZABUGA
Sergey | - Deputy Director General, Non-Commercial Partnership «Center of Transborder Cooperation» |
| 4. BUDANOV
Andrey | - Vice-president, Far Eastern Chamber of Commerce |
| 5. KONDRASHOVA
Elena | - Construction Project General Manager, JSC «Smena Trading» |
| 6. SIDORENKO
Igor | - Financial Director, JSC «Smena Trading» |
| 7. ZHANDARMOV
Alexander | - Director, <u>Individual Businessman Zhandarmov</u> |
| 8. SUKHANOV
Ivan | - Director, Center of Support of Exporters, Fond for Support of Small Entrepreneurs |
| 9. SVINCHUKOV
Sergey | - Director, JSC “Khabarovskaya International Fair” |

한국측 - 오전 회의와 동일

□ 주요 면담 내용

○ 극동 상공회의소 소개 및 활동

- 극동 전역 관할하지만 주로 하바롭스크에서 근무
- 극동 각주 상공회의소 존재

- 연방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극동 상공회의소도 기업 관심사 소개
- 주정부의 한국에서의 투자 설명회 개최 설명
- B to B 포탈 개발 작업 중(2년간 진행, 아직 큰 진전 없음). 러시아 기업들을 한국 기업에 소개하는 프로그램. 극동 기업들 소개도 진행 예정
- 극동지역은 특화된 지역으로 생산 기업들이 많지 않아 산업구조가 단조로움, 포탈 구축 관심 가질 수 있을 것

○ 하바롭스크 국제박람회 소개

- 19년간 활동, 연간 20회 이상의 박람회 개최
- 하바롭스크 및 극동 지역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
-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건축분야 박람회 인기 높음
- 75주년 하바롭스크 기념 박람회 개최 예정. 한국 기업들의 참여 제안.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하바롭스크 지역 정보 및 시장정보 등을 얻을 수 있음.
- 연간 박람회 참여자는 4만명 이상

○ '수출 지원 센터 및 중소기업 지원 펀드' 소개

-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해 2년 전 구축
- 한국의 부산에서 국제협력 회의도 진행
- 동 센터를 통해 한국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 많음.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
- B to B 포탈 개발되면 기업들 관심 높아질 것

○ Smena Trading 기업 소개

- 삼림 수출, 목재가공, 부동산 건설 및 임대, 피트니스 서비스

(<http://www.global-fit.ru>) 사업 등 소개

- 한국의 건설 자재에 대해 관심이 많음.

○ 산림자원 관련 프로젝트 등 주요 투자 프로젝트 사업 소개

4. 발틱카 공장 방문

○ 발틱카 공장 방문 일시 : 2013. 2. 19, 16:30~17:30

○ 공장 소개

- 24년된 기업, 현재 칼스버그 소속
- 러시아내 10개 공장 중 하나, 연간 200만 리터 생산, 380명 근무
- 친환경 기술 도입,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
- 지역 사회 문화 활동에 많이 기여
-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캔맥주 생산 예정
- 금년 1월부터 10시 이후 야간 맥주 판매금지, 영향 받을 것임.

5. 현대 중공업 연해주 GIS 공장 방문

□ 개요

○ 장소 : 연해주 GIS 공장

○ 방문 일시 : 2013. 2. 19, 10:30~11:30

○ 참석자 :

현대측 - Hyundai Electrosystems, General Director 강중호

방문자 - 방문자 전원

□ 주요 면담 내용

○ 연해주 GIS(Gas Insulated Switchgear) 공장 소개

- 2010. 8 MOU 체결, 2011. 9 기공식 (러시아연방 부총리 참석), 2013.1.25. 준공식
- 연매출 2억 달러 생산능력, 종업원 수 약 200~300명
- 블라디보스톡 공항~시내 공항도로변 위치
- APEC 회의와 연계된 분위기 속에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하였음에도 공장부지 선정에 어려움 많았음. 공장 건설 과정에서 러시아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리 없이 진행

○ 부품 현지 조달을 제고 예정

- 자동차 부품업체들처럼 생산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부품업체들의 동시 진출로 현지 조달을 제고 가능
-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품 현지 조달 확대 계획

○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

- 산업용 평지 임대 제공 필요
- 진입도로 가스, 상하수, 통신 등 인프라 임대 및 신속한 제공 필요
- 현지 제작사 보호 위해 동종 품목 완제품 수입시 관세 부과 등 차별화 필요. 현재 현지 제작 업체입장에서는 역차별(현지 공장의 부품 납입가격이 한국 등지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)

- 비자 발급 간편화 및 기간 연장 필요
- 중국 현지 생산 시설 건립의 경우 러시아보다 많은 지원 받음. 따라서 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중국이나 인근 지역보다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.
- 극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있어 정부측 지원 없으면 중소기업체들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

6. 연해주 주정부 산업협력세미나

□ 개요

○ 장소 : 연해주 주정부 청사

○ 방문 일시 : 2013. 2. 20, 2:30~4:00

○ 참석자 :

러시아측 - 연해주 정부 경제부 국장 N. A. 두비닌 등 9명

СПИСОК

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с делегацией Корейско-Российского Делового Совет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 февраля 2013 года

1. **ДУБИНИН**
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-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ки
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;
2. **ПЕТРОВА**
Надежда Сергеевна - зам.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ки
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;
3. **ЛАДЫГИНА**
Татьяна Леонидовна - зам.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
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
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; IT
4. **ШИРШОВ**
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- зам.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
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иморского
края; IT
5. **ЩУР**
Владимир Викторович -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ных
программ департам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
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
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; IT
6. **ШУВАЛОВА**
Кристина Петровна -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
деятельности и инвестиций департамента
экономик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; IT
7. **ЯСКЕВИЧ**
Елена Викторовна -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НО «Агентство по
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Приморский
край»; IT
8. **НОВОСЕЛЬЦЕВ**
Евгений Михайлович - зам.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НИОКР
ОАО «ДНИИМФ»;
9. **ХОЛОША**
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-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а
ОАО «ДНИИМФ»; IT

한국측 -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산업협력세미나의 한국측 참석자와
동일

주요 면담 내용

두비닌 국장의 연해주 소개

- APEC 계기로 시내의 많은 변화를 목격하였을 것

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

- 주지사 지시에 따라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중이며 관련된 각종 인프라 건설에 힘쓰고 있음.
- 노동생산성 높은 분야, 수송 분야 등 산업화 및 생산성 높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
- 주지사 명령으로 투자 관련 법 개정 검토
- 추가적인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검토 중
- 산업 특구 조성에 의한 투자 유치 계획
- 17개 세부 투자프로그램 운영, 연해주 사회경제 개발 5개년 계획상의 개발 프로젝트 등

○ 산업단지 등 각종 클러스터 조성 중임

- 석유 가스 클러스터, 교통물류 클러스터, 관광 클러스터, 농업 클러스터, 어업 및 수산가공 클러스터 등을 조성
- 경제 특구, 항만경제특구(트로이츠항, 보스토치니항), 스마트그리드 등 사업 진행
-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건설작업도 병행 중. 공단 부지 주변에는 향후 필요한 인프라 건설 중이며, 동 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제안을 환영함.
- 국방부 소속 영역조차 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계획 중임
-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5개 클러스터에 연해주 클러스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APEC 회의를 계기로 연해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이미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임.
- 클러스터는 공단보다는 규모가 크게 진행될 것임. 우수리스크 산업단지 보다는 칼루가주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형식이 될 것임.

- 중국기업 중심의 우수리스크 공단 건설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
 - 각각의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, 연해주 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이 있음.
- 농업 클러스터의 경우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투자 제안을 이미 받고 있음.
- 우수리스크, 미하일롭스크 등지 농업단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비
- 필요한 인력은 극동 소재 각종 대학에서 공급 가능함.
-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도 공급 가능하며, 이미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음.
- 관광 경제 특구, 카지노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대외협력국, 관광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됨
- 루스키 관광 특구는 현재 컨셉 계획중. 투자 관련사항이면 한국측의 제안을 언제나 환영함.
- 연해주 정부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루스키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임.

7.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면담

□ 개요

○ 장소 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

○ 방문 일시 : 2013. 2. 20, 4:40~5:30

○ 면담자 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이양구 총영사

□ 주요 면담 내용

○ 극동 사업은 우리 기업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음. 민간과 정부가 공조해야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음.

- 정부 주도의 극동지역 협력사업에 관한 플랫폼 구성과 액션 플랜을 작성하여 큰 틀에서 제안하고 설명해야 할 것임.

○ 총영사관 주도로 작성중인 투자 환경 보고서에 대한 설명

- 극동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 정책, 투자 환경, 유망 투자 분야, 성공 사례, 실패 사례, 법적 문제 등을 다룸

- 러시아 정부측 스크린과 간접적 동의하에 진행

- 정부간 정책 협상은 물론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

○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시 원칙 지킬 필요가 있음.

- 극동의 사업 환경은 여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.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.

- 투명한 사업과 탄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함.

○ 새정부 정책상 극동의 중요성 커질 것이며, 남·북·러 가스관 사업 등을 거시적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가격만 따진다거나 북한의 리스크만 부각해서는 안 될 것임.

- 가스관 사업이 성공한다면 철도, 전력, 도로망 사업 등으로 이어질 것임. 잃는 것보다 얻는 것 더 많을 것

- 외교, 안보, 경제 등 전체적인 전략으로 보아야 함.

- 미래와 창조를 강조하는 신정부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테크노파크 구상을 잘 활용할 필요 있음.

○ 나호드카 한국 공단도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함.

- 한·러 양국 정상간 협정도 아직 유효

- 법률적 측면에서도 양호한 상황. 러시아측도 아쉬워하는 사업

- 성공사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있음.

- 중국의 우수리스크 공단 사례 활용해야. 정부간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음.

- 나호드카 사업 등은 중국과는 차별화되는 프로젝트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.

○ 기업들도 참여하는 우리 정부의 극동 진출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있음.

- 러시아 주 정부와의 협제도 필요

○ 러시아에 대한 KSP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테크노파크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테크노파크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문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핵심을 파악한 세밀한 비전 제시로 극동에서의 경험 돌파구 마련 필요

- 한·러 극동사업 관련 상시 협의체 구성도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

8. 루스키섬 특별경제구역 방문

- 장소 : 루스키섬 특별경제구역
- 방문 일시 : 2013년 2월 21일, 09:30~ 11:00
- 연해주 경제국 안내로 루스키섬의 APEC 관련 시설 및 극동대학 관련 시설 견학

9. KOTRA 블라디보스톡 관장 면담

□ 개요

- 장소 : 블라디보스톡 시내 식당
- 면담 일시 : 2013년 2월 21일, 11:40~12:30
- 면담자 : KOTRA 블라디보스톡 관장 김한일, 차장 주한일

□ 주요 면담 내용

- 블라디보스톡 진출 국내 기업 소개
 - 대부분 지상사 판매 위주 활동
 -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최초의 제조업분야 진출
- 극동 지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음.
 - KOTRA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

○ 투자 진출 리스크는 여전히 큼.

-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임.
- 제조업 분야 연관산업이 없어 투자 진출 리스크 큼
- 우수리스크 중국 산업단지는 150ha 규모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산업단지 측면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음.
- 한국기업들의 접근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됨.

○ KOTRA나 몇몇 기관 단독으로 산업협력 활동 전개에 한계가 있음.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투자 활성화 될 것임.

- 물류나 유통구조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행사, 조사 관련 일이 많고 인력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실정

○ 자동차 산업 분야 설명

- KOTRA와 협의하여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 참여 요청

○ 러시아 측의 프로젝트 리스트는 많이 있지만 기초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음.

- 정부차원 자금지원은 별로 없고 프로젝트 리스트만 많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
-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만한 사업이 거의 없음.

○ 제조업 분야 투자 활성화는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북한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진행해야만 할 것임.

- 자원개발 분야보다는 제조업 분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
- 농업부문에서는 그런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음.